

“해풍으로 키운 청정 고추 오감체험 하세요”

26일 고창군 해리면 ‘해풍고추축제’ 개최 직거래 장터·공연 다채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고창 고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해풍고추축제’가 열린다.

고창군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고창군 해리면 일대에서 ‘청정 고창 해풍고추, 그 맛과 향을 체험’을 주제로 ‘제 21회 고창 해풍고추축제’를 연다.

고창 해풍고추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의 황토 땅에서 서해안의 바닷바람을 맞고



지난해 열린 고추축제에 개설된 직거래 장터에서 지역민들이 햇고추를 판매하고 있다

자라 색이 붉고 깨끗하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병해충에 강하고 껍질이 두꺼우며 빛깔이 고와 최고

의 고추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는 이같은 해풍 고추의 우수한 품질을 오감(五感)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초점

을 맞춰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직거래 장터도 꾸려졌다.

특히 해풍 고추 감쪽경매, 품평회와 해풍 고추로 사람의 김치 담그기, 고추김밥, 고추전 부쳐 먹기, 고추장 비빔밥 퍼포먼스 등 소비자들이 직접 고창 해풍고추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은 게 특징이다.

또 고추찌지 빨리따기, 고추 무게 맞추기, 고추모양 천연비누, 열쇠고리, 방향제 만들기 등 관광객들을 위한 관련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고창군은 아울러 직거래장터를 개설, 고창에서 생산된 햇고추를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완도군 수산물 안정 공급·판매 촉진

(주)LF 푸드와 협약... 내달 ‘씨푸드 페스티벌’ 공동 개최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주)LF 푸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완도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홍보·판매를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주)LF 푸드는 LG패션의 회사로 지난 2007년 11월 설립된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주)LF 푸드는 완도 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편, 완도 브랜드 가치와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인 (주)LF 푸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LF FOOD의 직영 운영하고 있는 ‘마키노차야 뷔페’ 역삼점, 판교점에서 완도산 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완도 씨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최와 함께 완도 특산물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데 합의했다.

신우철 군수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주)LF 푸드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순창군, 조선시대 유학 현대적 의미 재조명

25일 훈몽재서 학술대회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 선생을 비롯한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삶과 유학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오는 25일 순창군 훈몽재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김인후 선생과 순창의 유학’을 통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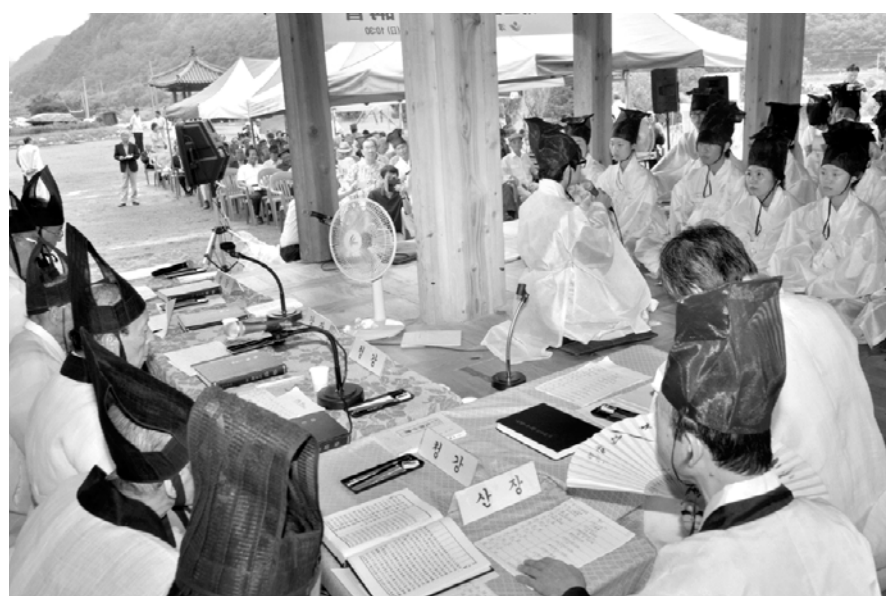
이날 학술대회에는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하서 김인후와 순창의 유학 전통’을 주제로 발표하고 소현성 전주대 교수는 ‘하서 김인후의 유학 사상’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철승 조선대 교수, 한국외대 강진석 교수, 중앙대 안재호 교수, 중국 남창

대 서한복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진행 된다.

행사장인 훈몽재는 조선의 대유학자인 김인후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부인의 고향인 순창 쌍치면에 지은 학당이다. 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난 2009년 중건돼 후학을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훈몽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학술 대회에는 백록동서원이 위치한 강서성의 중국 남창대 교수와 학부생 등 30여명도 참여,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의 장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정영민기자 jyg@



지난해 순창군 훈몽재에서 열린 학술대회 모습.

전주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호응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정책 뿐 아니라 청년 정책, 도시 재생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있어서다.

전주시는 우선,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 반영될 지역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의 사업제안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 시는 접수된 제안들에 대한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실행가능성 등을 따져 실무위원회 회의로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전주형 저출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전주시 인구정책 제안’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인구를 늘릴 방법을 시민들에게 묻는 것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결혼하

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혼인장려 방안) ▲ 임신·출산 장려 정책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사회구현 ▲양육 및 보육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전주시는 또 만 19세~39세의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단이란 제안한 청년정책·사업 10개에 대한 실현 가능성·지속가능성,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을 따져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까지 교통·통신·먹거리·의료 등을 공유,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껴온 사례에 대한 공모도 진행 중이다. 실생활 속 참신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수렴,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시민과의 협치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남대 폐교는 지역 경제 악영향”

남원시민들 정책 변화 요구

춧불문화제 등 향의 잇따라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는 남원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않고 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공식화하자 전북지역 각계각층이 서남대 폐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춧불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열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남대 정상화 남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서남대 정상화를 촉구하는 춧불문화제를 교육부의 폐교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춧불문화제에서 서남대 폐교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난 한남대 인수 방안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남대 폐교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도 촉구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춧불문화제는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라며 “교육부가 끝까지 사학비리 편들기식 정책을 펴나가면 엄청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칠월칠석엔 국악콘서트에서 낭만 만끽”

28일 남원 사랑의 광장

국립민속국악원이 칠월칠석인 오는 28일 남원시 사랑의광장에서 ‘한여름 칠월칠석, 은하수 국악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서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로린 마젤이 평양에서 공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아리랑 환

상곡’과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주곡, 남도민요 ‘꿈이로다, 꿈이로다’가 선보인다.

남도지방 옥자배기 선율의 ‘진도아리랑’, 어부의 삶을 관현악으로 표현한 ‘신뱃놀이’, 궁거리와 휘모리장단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게 해주는 ‘축제’ 등도 무대에 오른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세 일 글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열린 검찰 될 것”

박영진 광주지검장흥지청장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권위적으로 인식됐던 검찰의 관행을 떨쳐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영진(44) 광주지검장흥지청장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지청장은 토착형 비리를 척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정부

한 보조금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41회(연수월 31)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법무부 상사법무과, 대검 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흥=김영희기자·충무주재부장 y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방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물도 좋은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 완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접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판선용 주택과 누사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별장용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당요
- 남구 서동 2층주대지 125㎡ 건평 124㎡ 임대 195천 월1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완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동일면 6891㎡ 판선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재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여㎡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를줄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부근 대로면 대지 822㎡ 건평 344㎡ 18억
- 유동 모빌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임대보증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천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군, 비금도-핏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무인도,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2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공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